십자가와 교회(4)-목회자 기본마인드

(마태복음 16:20~28)

20.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21.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 삼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22.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23.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24.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십자가와 교회(4)-목회자 기본마인드>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십자가와 교회(4)-목회자 기본마인드'
오늘 말씀에서 목회자의 기본마인드를 의식하며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예고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바로 전 17절에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라고 격한 칭찬을 들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류하게 되고, 예수님께서는 이번에는 베드로를 향하여 23절에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바로 십자가 사건을 만류하는 베드로를 꾸짖으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목회자의 기본마인드입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은 목회자 앞에 십자가를 등진 채로 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으셨듯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할 수는 없지만, 목회자들은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쪽으로 마음의 방향을 제시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목회자의 기본마인드입니다. 다시 말해 십자가를 등진 사람들을 십자가를 바라보도록 함이 목회의 알파와 오메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지금까지 나누어 왔던 교회에 관한 말씀에 비추어 목회자가 가져야 하는 목회의 개념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목회는 교회를

위한 것이며 예수님의 십자가 너머의 공간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이끄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단순히 건물로서의 예배당을 중심으로 개별적 조직체를 이루려 하거나 사람들을 가능한 많이 모으려고만 한다면 목회는 일종의 자영업이 되어버립니다. 그 수가 많아지면 중소기업 목회가 될 것이고, 아주 더 많아지면 대기업 목회가 될 것입니다.
바른 목회자라면 교회의 개념과 밀착된 목회의 개념을 가져야만 합니다. 교회는 십자가 너머로 마음을 보낸 사람들 전체입니다. 십자가로 세상에 대해 날마다 죽는 사람들입니다. 전 세계 어느 곳에 있든지 십자가 너머로 마음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은 곧 음부의 대문을 향하는 길에서 벗어났음을 뜻합니다. 음부의 대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사이즈로 만들어진 마음의 공백을 이 세상에서 만족거리와 기쁨거리를 찾아 채우려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음부의 대문을 대신할 십자가 대문을 세우셨습니다. 살아있을 동안에 십자가 대문으로 마음을 보내면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의 길을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내 마음은 하나님 아들의 자리에 계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받아들이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함께 받아들임으로 마음을 채워서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러한 교회를 위해서 사역자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 목회자입니다. 좀 더 범위를 넓히면 말씀사역자나 전도자 모두를 포함합니다. 오늘은 이런 목회자의 목회활동이 갖는 속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봅니다.
목회자는 자기 소속으로 단 한 사람의 교인도 가질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경부선 완행열차가 달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열차가 서울에서부터 부산을 왕복하는 동안에 수많은 역들을 거치게 됩니다. 목회자는 그 역들의 역장 역할을 수행하는 자입니다. 작은 역에는 역장 외에는 다른 직원이 없습니다. 역장의 역할은 개찰구에서 경부선 열차에 탑승하기 원하는 승객들의 표를 받고 열차에 태우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사람들은 내가 서 있는 개찰구를 통과하지만 내게 속하지는 않습니다. 경부선 열차의 승객이기 때문입니다.
목회자의 목회 현장은 마치 이러한 열차의 역과 같습니다. 경부선 완행열차는 어느 역장의 소유도 될 수 없습니다. 십자가 대문으로 마음을 보내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께서 만드신 길을 따라 하늘까지 가게 됩니다. 교인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라는 열차에 마음을 태운 승객이고, 전 세계 어디에서나 사람들을 십자가 대문으로 들여보내기 위해 개찰구의 역장으로 서있는 자들이 바로 목회자입니다.
교회는 곧 마음의 모임입니다. 전 세계에서 인종과 국가를 초월한 마음이 십자가 대문으로 모이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목회현장은 하나의 개찰구와 같은 역할을 할 뿐입니다. 이렇게 보면 예배당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수많은 프로그램과 새로운 교리가 되어버린 성수주일은 어떻게 보자면 사람들을 예배당으로 불러 모으기 위한 하나의 상술로 전락할 가능성이 생깁니다.

성수주일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중요한 가치를 사람들의 몸을 예배당으로 끌어들이는 목적으로 삼으면 정작 목회는 놓치기 때문입니다.
예배당 안으로 사람들을 많이 모으는 것을 목회의 목적으로 생각하고 지나온 결과 지금 현재 기독교는 크게 쇠퇴하게 되었습니다. 한국만 봐도 한 때 1,200만 까지 언급되던 기독교인의 숫자가 이제는 600만에 불과하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주일성수하는 교인은 채 300만이 안 되는 형편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목회의 성공은 사람들의 육체를 삶의 현장으로부터 예배당 안으로 많이 끌어 모으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현장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교회 안에 머물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사람들의 몸을 예배당 안에 머물게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몸이 예배당 안에 있더라도 마음은 교회 바깥 세상에 속할 수 있기 때문이고, 반대로 몸은 삶의 현장에 있을지라도 마음이 십자가 너머에 있다면 교회에 속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껏 우리는 교인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서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교인들의 마음은 여전히 사업장에서 돈 많이 벌기를 바라고 건강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마음은 전부 이 세상에서 채움 거리를 찾고 있는데, 몸만 예배당으로 불러들였다고 해서 그것을 목회의 성공으로 착각하였습니다. 그로인해 교회는 이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치열한 장삿속이 지배하는 상인들 사이에 있고 한 푼이라도 더 깎으려하는 악착같은 손님을 맞이하면서도 마음이 십자가 너머에 있다면 그 사람은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음이 교회 안에 있음이 중요한 것이지 육체가 예배당에 와 있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꾸짖으셨던 것입니다.

본문 20절을 보면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라고 하셨습니다. 앞서 16절에서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는 멋진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고백에 예수님도 놀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알고 계신 베드로의 영적인 상태에서는 이러한 고백이 나올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라는 고백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찾고 있었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많은 메시아 운동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미 여러 사람을 그리스도로 불러왔고, 그리스도를 기능적인 면에서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신'은 예수님의 아버지이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입니다. 그러나 당신께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신 것은 기능상 신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내 마음에 궁극적인 만족과 기쁨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어지는 대상이 기능적인 면에서 신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신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도 기능적인 면에서 다른 많은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주시는 구원의 개념과는 다른 개념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즉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있다고 믿어지는 다른 신을 섬기면서 예수님을 향해

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려는 구원은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칭찬을 들은 것은 이러한 인식을 뛰어넘어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고 그리스도가 주시는 구원의 내용을 정확히 규정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께서 그리스도로서 하실 수 있는 일은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하늘로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아들 자리에 머물게 되는 것이야 말로 구원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고백을 인격적인 차원에서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어나야만 하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지만, 그것이 인격적인 적용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고백을 하는 자들이 인격적인 구원에 도달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십자가와 부활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말씀대로 죽으신 후에 부활하시고 사십일 만에 승천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을 보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라고 말씀하셨듯이 반드시 십자가 사건은 이루어져야만 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영적인 상태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예고 앞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달랐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십자가에 매달려 오징어처럼 말라 죽어가는 로마의 형벌을 눈으로 봐왔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죽으실 것을 예언하시자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기겁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라고 항변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주님이 보시기에 십자가를 등지는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십자가를 등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세상 안에서 마음을 채우기 위해 기쁨거리와 만족거리를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이 세상에 대한 죽음을 뜻하기 때문에 세상을 향한다면 십자가를 등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주시려는 구원은 이 세상 안에서는 결코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만족을 구하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찾는 사람에게는 완전히 왜곡되어 엉뚱한 그리스도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예언하셨고 실제로 그렇게 되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본래의 영적인 한계를 드러내면서 십자가를 등지는 주장을 하고 말았습니다. 여기에서 목회자의 할 일이 드러납니다. 목회자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을 반복하는 자들입니다. 베드로와 같은 일들을 만류하는 것입니다. 앞서 베드로의 고백이 성도들의 고백의 대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류한 베드로 또한 성도들의 대표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원죄의 체질상 육체를 갖고 있는 동안 육체로 만나는 것들로 마음을 채우고자 하는 욕구를 발동합니다. 이러한 욕구는 자동적으로 발동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지난주에 예배를 드리며 십자가를 붙잡고 부활 승천의 길을 따라 마음을 하늘로 보내겠다는 다짐을 하고 성령의 역사를 믿으며 기쁨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일에 보면 또 다시 마음속은 자녀 건강 사업 등의 세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럴 때에 목회자는 십자가를 만류하는 베드로를 꾸짖으셨던 예수님의 심정으로 교인들을 돌이켜 세워야만 합니다.

24절을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라는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목회자는 자신이 예수님을 따르고 다른 사람도 예수님을 따르도록 이끄는 자들입니다. 그렇기에 모든 교인들도 음부의 대문에 서있는 사람들을 대해 목회자적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믿은 자로서 다른 사람을 이끌어야 하는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른다는 말을 오해하기 쉽습니다. 주님의 길을 고난의 길, 사역의 길, 사적인 욕심을 떠나는 길, 험한 전도의 길 등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도 않고 재미가 없습니다.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 또한 이렇게 위축된 것입니다. 예수님 따르기는 단순히 이 세상에서 십자가를 향해 가시던 주님의 공생애를 재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의 의미는 사람들의 마음을 모으기 위한 마인드 컬렉터로서의 활동이셨습니다. 마치 출애굽 때에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시고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시기 위하여 기적들을 일으키셨던 것과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공생애는 사람들의 마음을 모으기 위하여 일으키셨던 사역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로마서 6장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라는 말씀에서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십자가로부터 시작됩니다. 또한 에베소서 2장 6절에서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는 말씀대로 하늘에 오르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의 길을 따르는 것이지, 예수님의 공생애의 역할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공생애가 예수님의 개인적인 사명이셨듯이 우리에게도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꾸만 이 땅에서 예수님을 따르려고 합니다. 이 땅을 떠날 생각이 없고 이 땅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을 따라 고난을 겪으면서 또한 보람을 찾으려고도 합니다. 그로부터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공생애의 재현으로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목회도 비뚤어지고 개인적 신앙도 비뚤어집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승천의 길을 따르면 마음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 만족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대해서는 소원이 사라집니다. 그렇게 소원이 사라진 몸을 하나님께서 이용하시며 활동해나가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공생애와 같이 나만의 공생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도 삶으로 예수님을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의 삶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라는 말씀처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오시고 성령께서 오셔서 살아가시는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전적으로 타인을 위해 살아가는 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 요한복음 14장 10절을 비롯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오해해왔던 것입니다.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을 반복하여 성도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십자가에서 세상에 대해서 죽고 부활과 승천까지 따라가야만 합니다. 하늘까지 마음을 보내야만 합니다. 이것은 결코 괴로운 일이 아닙니다. 24절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라고 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기 위해서는 부인 할 내가 있어야 하고 부인 당할 내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부인되어야 될 나를 볼 수 있는 부인하는 내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크기로 만들어진 마음의 공백이 영원하고도 참되신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이것이 곧 영생입니다. 이렇게 마음의 공백이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하는데 우리의 마음은 일상적으로 세상을 통해 채워집니다. 사업을 잘 해서 돈을 벌어야 만족과 기쁨이 있으리라 믿고, 자녀들이 잘 되고 건강해야만 만족과 기쁨이 지켜진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마음 채움 거리를 붙잡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태가 부인되어야만 하는 나의 모습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이것을 부인해야만 부활 승천을 따라 하늘로 갈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세상 것으로 만족하겠다고 한다면 결코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이 마음 채움 거리로 이삭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상태에서는 마음을 하나님께로 보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부인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세상을 붙잡은 모습을 부인하는 나는 믿음을 붙잡은 나입니다. 하나님만이 내 마음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기쁨이고 만족이시라고 여기는 나의 모습입니다. 주님이 그리스도로서 내게 구원이 되시는 이유는 그 유일하신 기쁨이자 만족이신 하나님께로 내 마음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세상으로 인해 기뻐하려는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지금 가족으로 인해서 기뻐한다면 가족을 붙잡는 나를 부인해야 합니다. 돈과 무병장수를 붙잡는 나를

부인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인정받기를 원하는 나를 부인해야 합니다. 이것은 진정한 내 모습이 아니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사업에 마음을 지배당하고 있는 집사님에게 말씀을 전할 때에 어떻게 위로를 주고 소망을 줄 것인지에 대해서만 생각해왔습니다. 조용기 목사님이 불광동 천막교회에서 가난으로 고통 받는 자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기 위하여 삼박자 축복의 원리를 만드셨다고 하시는 것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목회자의 할 일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세상의 모든 기쁨거리에 대해서 죽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라고 하신 말씀처럼 십자가를 통해서 가능해집니다.
예수를 따르는 것은 십자가 부활 승천의 길을 따라감으로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 내 마음을 채우는 것입니다. 돈이 없어서 고민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긍휼과 자비의 마음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는 베드로를 향하여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라고 꾸중하셨습니다. 돈이 있어야 만족하리라는 믿음은 사탄이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져야 내 마음이 기쁠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도 사탄이 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러한 믿음으로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베드로의 생각에는 나라의 독립이 마음을 채워줄 것 같았고, 장관 자리를 하나 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또 마음을 채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죽음을 예언하시니 베드로는 용납할 수가 없었기에 ‘주여 그리 마옵소서’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믿음을 꾸짖으셨습니다. 나라의 독립이나 장관 자리로 얻어질 기쁨에 대한 믿음은 사탄이 주는 것임을 일깨우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는 고백을 주셨지만, 사탄은 돈이 있어야 기쁘고 나라가 독립해야 기쁠 것이라는 믿음을 주었습니다.
목회자는 사업이나 자녀 문제로 상담하는 자에게 자녀나 사업이 문제가 아니라, 자녀를 붙잡고 사업을 붙잡고 있는 본인이 문제임을 일깨워줘야만 합니다. 십자가에서 자녀와 사업에 대해서 죽고 부활 승천의 길을 따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것을 제시하는 자가 목회자입니다. 베드로를 향해 꾸짖는 예수님의 마음이 마찬가지로 목회자의 기본마인드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 미처 다루지 못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라는 부분은 다음 설교에서 계속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교회의 개념이 바뀌면 목회의 개념이 바뀌어야 하고 개개인의 신앙의 개념도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조용하지만 분명하고 단호하게 이러한 변화들이 곳곳에서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